

3)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본문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좀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예수의 승천은 우주 공간으로 공중 부양하신 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종말론적 생명으로의 변화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경험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만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증조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을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와 같습니다. 예수 승천이 가리키는 것은 종말론적 생명이라 할 예수 부활이 우리의 일상에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싶으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상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라는 말이 어색하면 신비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도 멀게 느껴지면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는다면 고난도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4) 판넬베르크는 졸역 『사도신경해설』158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계시될 그것이 비밀스럽게 오늘의 현실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이다.” 재림하실 예수는 심판자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마 13:30)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 종말 때까지는 세상 권력이 기세를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 심판이 오늘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비밀스럽게 현실성(reality)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로마 제국의 폭력성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5)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가요? 매일 1억 원씩 써도 평생 다 쓰지 못할 겁니다. 그는 돈에 파묻혀서 살다가 곧 늙어 죽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다는 사실만 역사책에 기록되었지요. 그는 죽을 때 그 많은 돈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이미 종말에 완성될 생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땅에 묻힌 보물을 찾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기 위해서 등잔을 손에 든 여자처럼 일상을 깨어 있는 영성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삶보다 더 참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2월25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3주



제목: 색깔과 빛(color and light), 미국 워싱턴 DC 주교좌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의 한 부분이다. 색깔과 빛이 영롱하다. 창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첫 창조는 ‘빛’이다. 빛은 생명이고 희망이다. 빛이 있기에 색깔도 있다. 지구에만 색깔이 있는 이유는 지구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미국 반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시편 19:1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십자가 죽음까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비 중의 신비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선하며,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만 왕 의 - 왕 우 리 구 주 태 초 부터 영 - 원 까 지

영 광 영 광 누 리 소 서 - 아 - - 멘

[알 리 는 말 씀]

- * 예배 후에 설교말씀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합니다.
- * 다음주 (3월 3일) 예배 후에 정목사님과 전교우의 식사가 있습니다.
- * 지난주일(2월 18일) 헌금: 510,000원
 - 주일헌금 60,000원 통장헌금 450,000원
 -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 2024년 3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3월 3일	정용섭 목사	최선아 집사/ 김용성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3월 10일	김동호 목사	이유선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유선 <시청각실>

지난주일(2월18일) 설교 발췌

제목: 예수 승천과 하나님 우편 (벤전 3:18-22)

1) 청소기로 집 안 구석구석 먼지를 끌어들이는 작업은 황홀할 정도로 멋진 일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못 합니다.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라고 추천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더 늙어서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로봇청소기가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청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를 인간처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제 설명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세계의 깊이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곧 창조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구원 경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2) 지난 2월13일 밤 8시 저는 '신학공부' 6강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를 생방송으로 강독했습니다. 강독 중간에 위르겐 몰트만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부제: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 4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목시자상적 고난'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고난의 '끝판왕'입니다. 그걸 목시적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였으나 하나님 역사에서는 승리였습니다. 4장 마지막 단락인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서막이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69장 (내 주 하나님)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469장 (내 주 하나님)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모두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새 언약'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고 넓고 깊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속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웃을 타자화하는 삶에 길들였습니다.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실체가 아니라 관념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풀어 주소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풀어 주소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 룯 하 - 시 다 거 룯 하 - 시 다 거 룯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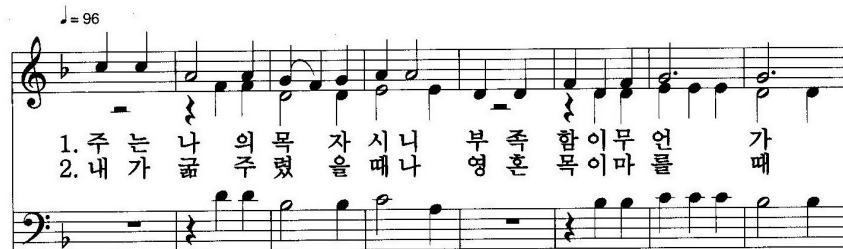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찬송」 45장 (주는 나의 목자시니) ... 다 함께

박화목

이건용



주는 나 의 목 자 부 족 함 이 무 언 가 때
내가 굿 주 려 들 때 영 혼 목 이 마 를 때



비 록 험 한 길 이 라 도 두 렵 없 이 가 겠 네
한 랑 없 는 사 랑 으 로 나 를 보 살 피 주 시 네



나의 참 목 자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각각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신비로운 일치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7:1-7, 15-16 ... 이기령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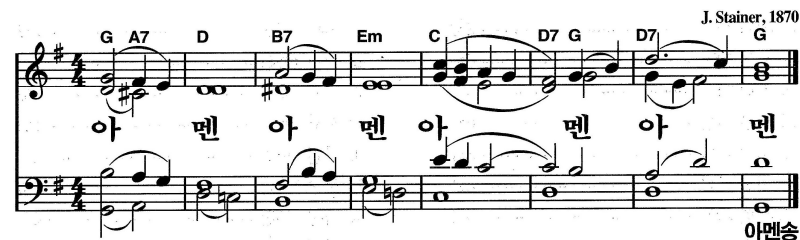
성시 교독 시편 22:23-31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주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라 이스라엘 후손들아 주께영광 돌리어라
-우리주는 곤란한자 멸시않고 외면않아 부르짖는 탄원소리 들으시고 답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일 회중앞에 찬양하라 회중앞에 우리드린 서원약속 지키신다
-가난한자 걱정없이 굶주림을 면케되며 주를갈망 하는사람 주를찬양 하리로다
온세상이 주하나님 기억하여 돌아오고 이세상의 모든민족 주님앞에 경배하리
-모든나라 주님의것 주님만이 다스리리 땅속에서 잠자는자 주님앞에 엎드리고
무덤으로 내려간자 주님앞에 절하리라 오고오는 후손들이 주하나님 섬기면서
-세세토록 전하리라 주의이름 전하리라 주의백성 구원하심 후손에게 전하리라

둘째 말씀 로마서 4:13-25 ... 이기령 집사

*셋째 말씀 요한복음 13:31-35 ... 이기령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사랑의 새 언약 ... 김동호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 1, 2절 ... 다 함께